

제 3 주제

금강의 뱃길과 역사자원 현황
및 활용방안

오 석 민

충청남도역사박물관장

錦江의 뱃길과 歷史資源 現況 및 活用方案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오 석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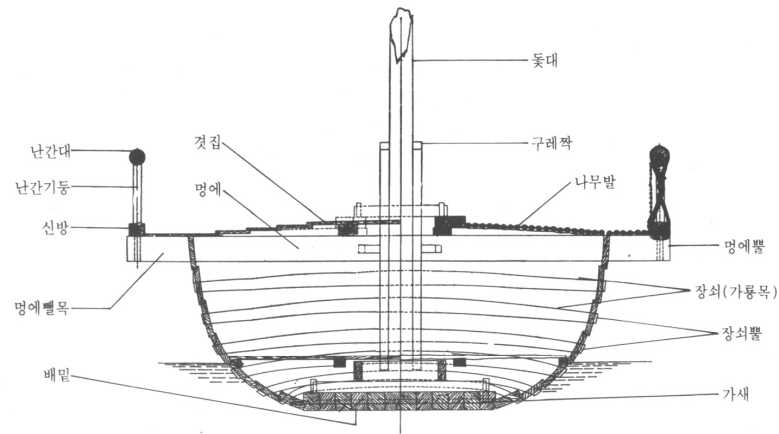
제1장 錦江의 뱃길 概要

- 뱃길의 의의 : 傳統時代 産業道路의 기능 수행
 - ⇒ 陸路上의 이동거리 단축을 위하여 내륙 깊숙한 곳까지 운항
 - ⇒ 平底船의 형태로 여울을 최대한 극복



[사진1] 하남시 배알미 마을에서 복원한 韓船

● 전통 어선의 중앙 단면도



3

- 1900년경 溯江 한계 : 50石 규모의 帆船 運航
 - 금강 본류 : 옥천과 영동
 - 미호천 : 충북 청주시 상당구 오근장동
(금강 합류점 약 25km 지점)
 - ⇒ 1900년경 대홍수 : 溯江終點 = 美江으로 이동
- 교통상의 結節點
 - 강경포구 : 바닷배의 가항 종점 = 바다와 하천의 연결점
⇒ 원격지 교역(京江, 榮山江, 洛東江, 濟州島)의 기착점
 - 부강포구 : 강배의 溯江終點 = 내륙과 하천의 연결고리
 - 60石 규모의 帆船 운항
 - 1910년경 운항기선 : 三南商會의 第五進航丸
- 유통 물자의 성격 : 魚鹽(해안) ↔ 米穀(내륙)

4

[표 1] 1927년 현재 금강의 주요 포구 및 선박 현황

포구명	선박 규모	진출입 화물량	현재의 지명
補元里	400석 적재 이하	650톤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
熊浦	400석 적재 이하	1,406톤	익산시 웅포면 웅포리
笠浦	400석 적재 이하	2,997톤	부여군 양화면 입포리
江景	400석 적재 이하	93,110톤	논산시 강경읍 복옥동
窺麻里	200석 적재 이하	4,203톤	부여군 규암면 규암리
旺津	100석 적재 이하	771톤	청양군 청남면 왕전리
公州	100석 적재 이하	4,151톤	공주시 금성동
太平里	60석 적재 이하	375톤	연기군 금남면 대평리
美江	60석 적재 이하	413톤	철원군 부용면 부강리
논산	200~300석 적재 이하	9,756톤	논산시 대교동
길산포	200~300석 적재 이하	10,243톤	서천군 서천읍 삼산리

기타 : 龍岩(서천 장항읍 원수리) 新羅浦(同 화양면 망월리) 月浦(同 월산리)
 西浦(군산시 나포면 서포리) 岐浦(서천군 화양면 완포리) 羅浦(군산시 나포면 나포리)
 領詔院(부여군 세도면 반조원리) 長峯里(부여군 장암면 정암리) 舊校里(부여군 부여읍 구교리)
 反浦(공주시 탄천면 대학리) 熊津(공주시 웅진동) 馬於口(공주시 반포면 마암리)

5

제2장 錦江의 주요 浦口

1. 바다와 내륙의 연결고리, 江景浦

● 江景浦 인근의 지형

- 금강의 대표적인 범람원상의 低濕地에 위치한 丘陵地帶
- 합류지천 : 논산천·강경천·여산천·석성천·함열천·방축천·염천 등

⇒ 집중호우시 3개의 섬 모양을 이루는 지형

나도승 : “집중호우일 경우 취락은 3개의 섬 꼴을 이루어 奇觀을 자아내게 하였다.”

● 조선초기 江景山 烽燧와 江景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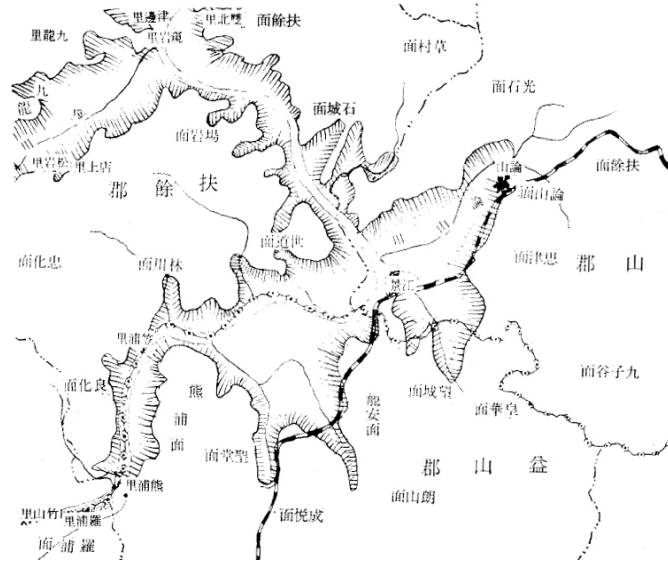
- 논산천 방면으로 넓게 확보된 시야 → 江景山 烽燧[江景台]
- 하천변 저습지로 돌출된 지형 : 은진↔임천간 大路[石峴路] 上의 나루터
 → 주변 저습지 : 육로상의 이동을 방해하는 어려움
 ⇒ 후대 이동로의 확보수단 : 미내다리[彌羅橋]와 원목다리[原項橋]

● 조선초기 중심 浦口, 市津浦

- 위치 : 금강에서 약 6.5km 지점 논산 부창동의 皇華山 서쪽 海倉 마을
- 소강중점 : 논산천 상류 草浦[草浦]까지 아우르는 논산천변 거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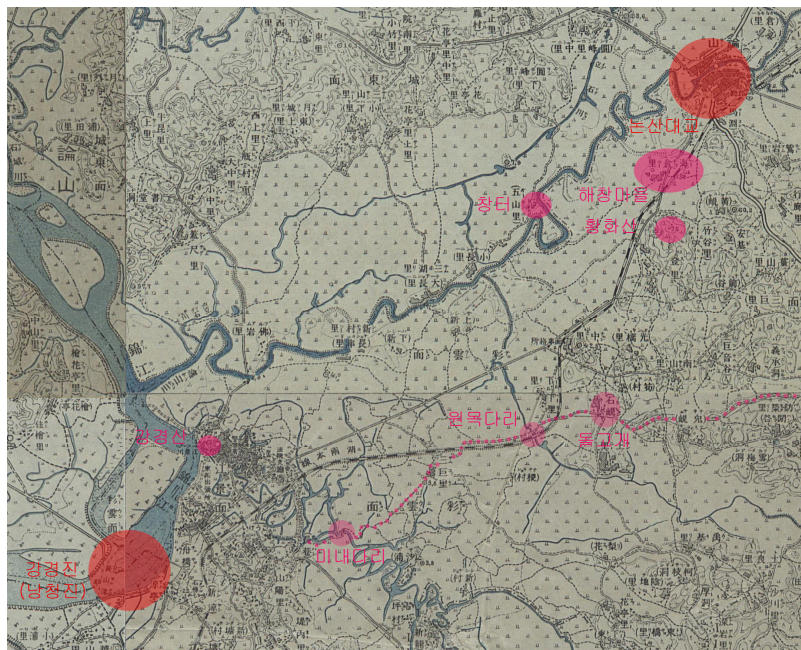
6

[지도 1] 금강(강경 일원) 범람구역(『南鮮의洪水』)



7

[지도 2] 1920년 전후 강경 인근 교통로 현황



8

- 江景浦의 부상
 - 계기 : 1683년경 訓練都監의 상설 점포[鋪子 또는 舖子] 설치
 - 경제적 배경
 - 운영경비의 확보를 위한 거점 선정
 - 제도적 권력의 비호에 의한 성장 가능성
 - ※ 은진현과의 세금 수취권을 둘러싼 갈등 표출
 - 주변 저습지에 대한 개간사업을 통한 田稅 확보
 - 宮房의 관심 고조 : 於義宮과 龍洞宮의 北魚去來稅 수취
- 江景浦 성장의 의의
 - 선박 규모의 차이 : 시진포(200석) ↔ 강경포(400석)
 - ※ 水深 : 3m(강경포), 5m(황산나루)
 - 상업거점의 성장 : 주변의 小浦口를 아우르는 물산의 집산지
 - ⇒ 조선 후기 우리나라 3대 浦口로 성장

9

- 주변 세력의 동향 및 관련 문화유산
 - 金長生(1548-1631) 등 기호사림 계열의 문화유산
 - 시기 : 1606년 이후 출입 개시
 - 臨履亭 : 1606-1626 사이 김장생의 주도로 건립
 - 竹林書院 : 1626년 金長生의 주도로 건립
 - 八卦亭 : 1663년 宋時烈에 의하여 건립(추정)
 - 德游亭
 - 시기 : 1828년 이전 (1793년으로 추정)
 - 주도세력 : 吏胥, 武任, 商人의 주도하였다고 전하나, 파평 윤씨 등 주변 世居士族의 참여가 많음
 - 성격 : 활터[射亭]
 - 강경포와의 관계 : 金浦面 契房 운영 관장
 - 浦口에서 收稅 대행
 - 面契에서 시행하는 당산제 주관
 - 은진현과의 관계 : 은진현감 金鍾奎의 지원(契金 1,600兩)
 - 金鍾奎 : 덕유정의 제6대 射伯 역임

10

● 기타 문화유산

• 선박 운항과 관련된 유적

- 龍影臺 : 뱃사람들이 제사를 올렸던 바위
- 解潮文(향토유적 24호) : 1860년에 바위에 새긴 潮汐 변화표
- 泡影臺 : 기능 미상
- 각종 倉庫 : 海倉, 江倉, 鹽倉 등

• 판소리 중고제의 전통

- 가계 : 3대 법제 중 중고제의 텃밭(金成玉-金定根-金昌龍)
- 거주지 이동 : 강경(옥녀봉)-여산-장항 성주리

• 종교 유적지

- 감대건 신부의 입국 (관련 문화유산 : 나바위성당)
- 금강을 통하여 전래된 침례교회의 전통

11

● 기호사림 계열의 문화유산



임이정

팔괘정



12

● 덕유정 관련 자료



덕유정 修契 기념사진(19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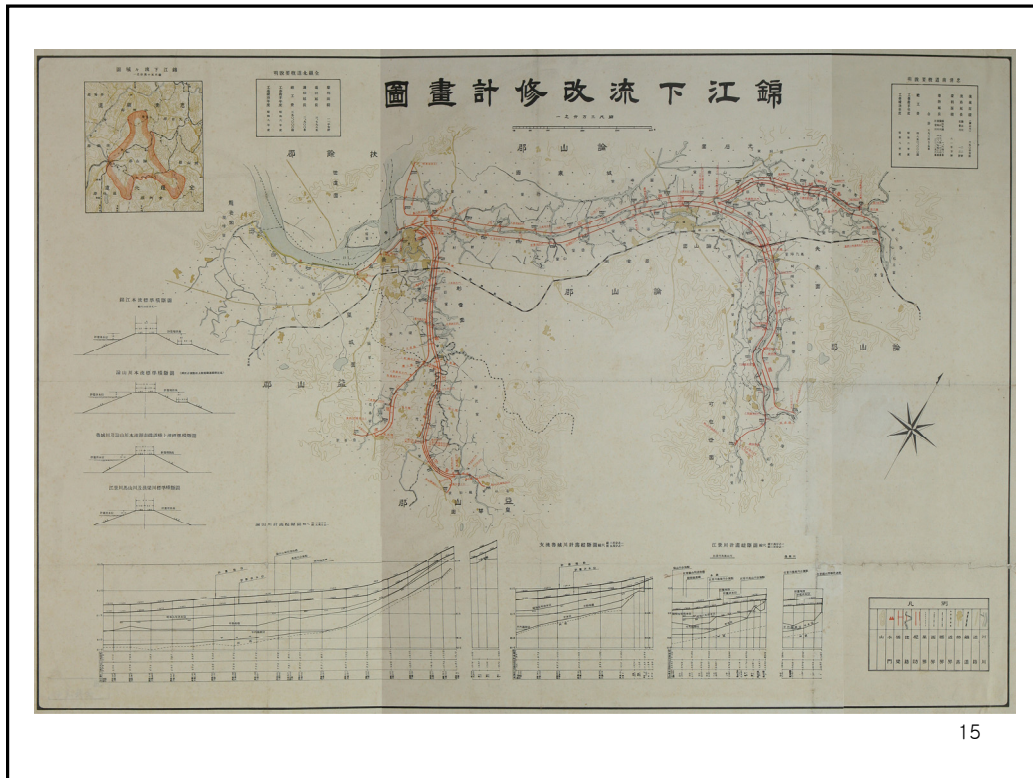
前縣監金鍾奎農武施惠碑

13

- 일제강점기의 치수사업(1931-1933년)
 - 관련자료 : 『錦江下流改修計劃圖』
 - 공사비 : 4,850千圓(충청남도) + 350 千圓(전라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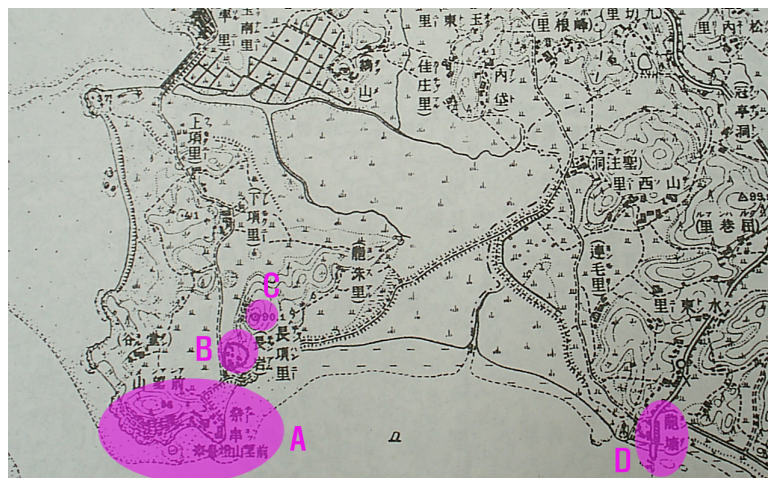


14



제3장 江景 하류, 鎭江의 주요 浦口

- 龍塘津：고려시대(熊津溟所)부터 조선시대(龍塘津祠)가 있었던 유적
→ 일제시대 新渡船場 및 神祠 → 현재 체육공원, 무당의 기도처
※ 인접 자원：長巖鎭城[기벌포 전투 및 진포대첩지], 장항제련소
관련 개발계획：국립 생태원, 국립 해양생물자원관 건립



● 新芽浦와 吉山浦

- 위치 : 국립 생태원 예정지의 인근 금강 본류와 지천[길산천]변
- 신아포 : 조선시대 船所
- 길산포 : 1927년 당시 공주+규암의 화물량을 초과하는 서천평야의 포구



吉山浦石橋碑(상단부)



길산포 거리 전경

17

● 羅里舖

- 설립목적 : 1720년 내륙지역의 어염 유통을 위하여 설립
- 원 위치 : 연기군 남면 나성리 (조선시대 공주목 소속)
- 1차 移設 : 1722년 臨陂(나포면 나포리)- 제주도의 흉년에 대비
(나리포의 곡물 ↔ 제주도의 갯양대[涼臺] · 물고기 · 미역 등)
- 2차 移設 : 1786년 羅州 濟民倉에 병합
- 公州山 전설 : 공주에서 떠 내려온 산

● 옥포리

- 위치 : 서천군 화양면 옥포리(동서천 돌게이트)
- 유래 : 목은 이색이 읊은 韓山八景 중의 하나(圓山戍鼓-踏青 풍습)



옥포리 圓山 전경



옥포리 화양객주집

- 웅포, 입포, 남당진 등 : 생략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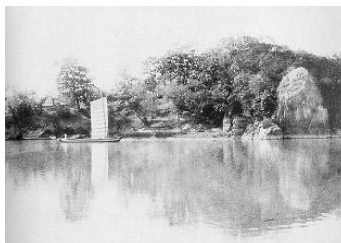


1: 장암진성 2:장항항(新渡船場) 3:龍塘津 4:新芽浦 5: 吉山浦 6: 옥포리

19

제4장 錦江의 중간 거점 浦口 1 : 규암

- 부여 규암포
 - 위치와 기능 : 밀물 때 潮水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대표 포구
200석 이하의 帆船의 運航
(상류의 돌여울[石灘] 상류는 100석 규모)
恩山場을 경유하여 청양 방면의 유통권
 - 옛바위[窺巖] : 백제 의자왕이 왕흥사를 출입할 때 쉬던 自溫臺라는 전설
스스로 따뜻해진다고 하여 붙은 지명임
 - 水北亭 : 광해군 때 金興國(1557-1623)이 건립
산신제와 용왕제가 행해지는 장소(할아버지 당산)



1920년대 자온대 전경



수북정 전경

20

- 기타 유적 : 낙화암, 釣龍臺, 大哉閣 등
- 전설 : 浮山(도교의 三山信仰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



1920년대 浮山과 돛단배

대재각 전경



21



22

제5장 錦江의 중간 거점 浦口 2 : 공주

- 공주 포구와 場市
 - 위치 : 제민천 합류점 (100석 이하의 帆船)
제민천변을 따라 저습지가 넓게 분포함(속칭 ‘미나리강’)
→ 점진적인 매립에 따라 시가지의 중심이 점진적으로 北進
(※ 공주읍 시장이동과 도로변천 참조)
 - 藥令市 : 1750년경 全州와 경합 후 결정
 - 위치 : 대통교 일원 (속칭 ‘약전골’, 공주읍 시장이동과 도로변천 참조)
 - 開市 : 봄 가을 2회 (40일간)
 - 변화과정 : 1910년대까지 번성
경부선 철도 부설 후 大邱에 주도권 상실
 - ※ 일시 大田에서 부활 시도
- 기타 유적
 - 공산성 : 공북루, 쌍수정 등
 - 음암나루 : 후대 금강교, 배다리, 금강철교로 변화
 - 공나루 : 검상동과 웅진동 사이의 나루터
※ ‘곰사당’ : 조선 초기 熊津衍所로 추정(『세종실록지리지』)
 - 장깃대나루 : 호남대로상의 나루
 - 四松亭 : 이중환이 『택리지』를 집필했던 누정

23

나도승(1982) : “초기 시가지의 北界는 난초다실-우체국선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저지대는 습지로 남아 있어서 1918년 시가지 계획에 의한
매립작업 전까지는 미나리강으로 이용되던 곳으로,
여름 増水期에는 帆船이 溯上할 수 있어 奇異한 景觀을 자아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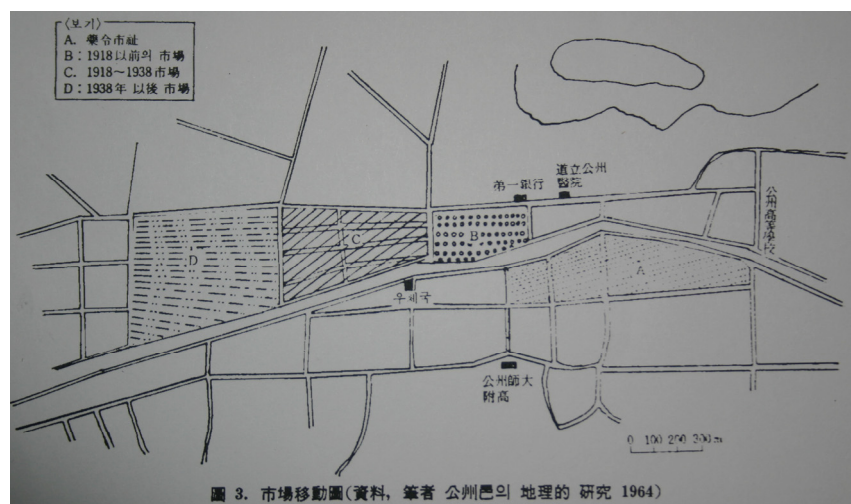


圖 3. 市場移動圖(資料, 筆者 公州邑의 地理의 研究 1964)

市場移動圖(나도승)

24



1933년 공주 지형도

25

제6장 錦江의 중간 거점 浦口 3 : 羅里鋪

- 나리포의 위치와 연혁
 - 위치 : 연기군 남면 나성리
 - 목적 : 1720년 내륙지역의 어염 유통을 위하여 설립
→ 1722년 臨陂(나포면 나포리)로 移設- 제주도의 흉년에 대비
- 주변 場市의 변화상 : 감성장 - 1910년 원대평 - 1936년 용포리로 이설
- 관련 유적
 - 獨樂亭 : 1407년 부안임씨 林穆(1371-1448)이 건립
 - 岐湖書社 : 1710년 임항조 林蘭秀 등을 모시는 祠宇(현재 家廟로 존속)



독락정 전경

26

제7장 錦江의 소강종점：美江

- 부강 포구와 場市
 - 위치：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 기능：금강을 溯江한 物産의 내륙 분배의 거점
 - 선박규모：1900년대 초반 이후 금강의 소강종점 (60석 이하 帆船)
 - ※ 1900년 이전：미호천과 금강을 이용한 溯江 가능
 - 철도 부설 이후의 변화
 - 경부선 부설：경부선 화물을 강경 또는 군산으로 이송(T자형) 부강 포구의 최대 번성기
 - 1911년 호남선 부설：水運과 鐵道の 경합기 = 쇠퇴기의 시작 場市가 철도역 부근으로 이동
 - 장터의 변화：하천 범람과 철도 부설에 따라 이동 (※ 美江里 附近의 河道變遷과 聚落移動圖 참조)
- 주변 유적
 - 合江亭터：祈雨祭를 지내던 龍塘 인근의 옛 정자의 터(건립자 不明)
 - 霽山亭：林永休(1855-1911)이 주도하여 1919년 완공
 - 合湖書院：1716년 건립, 1927년 재건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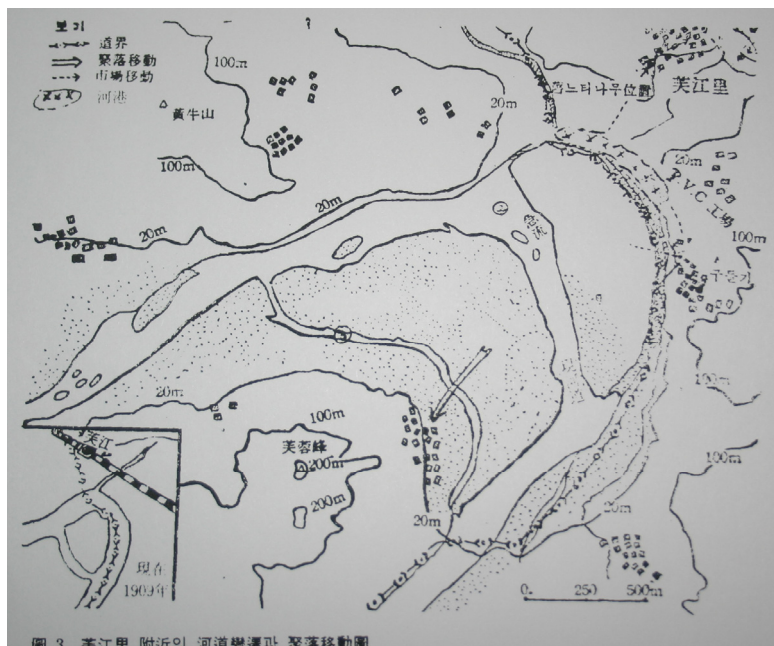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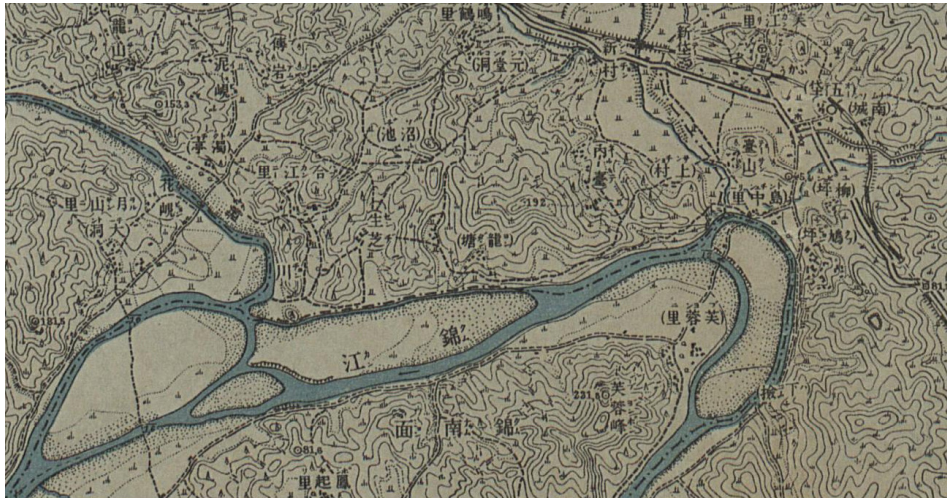


圖 3. 美江里 附近의 河道變遷과 聚落移動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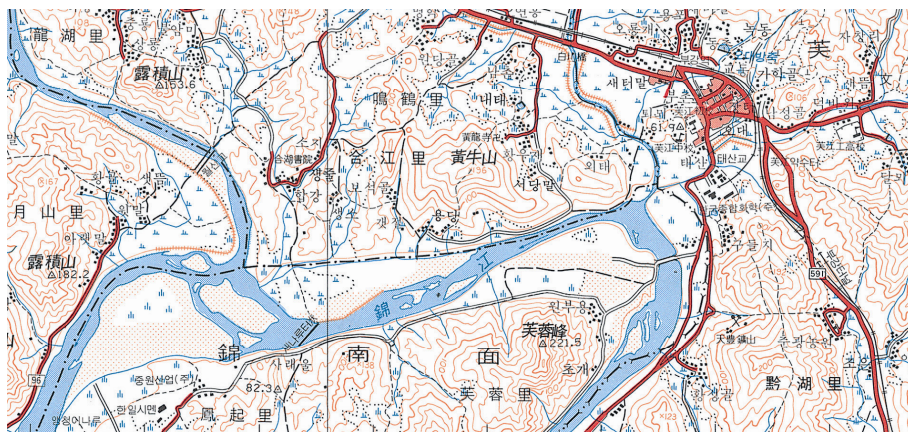
美江里 附近의
河道變遷과
聚落移動圖

28



1923년 芙江 인근 지형도

29



현재 芙江 인근 지형도

30

제8장 정책 제언

- 시대에 따른 河上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
 - 주기적 범람, 특히 상류부의 土砂로 인하여 河床의 급속하게 높아짐
 - 지역의 거점 = 옛 포구 : 하천의 폭이 넓은 곳에 입지하는 경향
 - 20세기 이후 流量 감소에 따라 급격한 퇴적활동
(생태공원 조성사업 대상지로 거론되는 경우가 많음)
 - ⇒ 共時的 연구의 한계 : 通時的 접근에 따른 보완의 필요성
(古地圖 - 일제강점기 지형도 및 治水 관련 자료의 적극 검토 필요성)
- 시대에 따른 流路 변화에 대한 조사연구의 필요성
 - 일제강점기의 치수사업에 따른 流路 변화
 - 논산천의 直江化, 강경천의 合流部 변경
 - 제방 축조에 의한 변화 : 세도면 = 둔치로 존치
길산천변 = 경작지로 개간
 - 항상적 침수지역에 대한 재검토
특히, 堤防 외부 경작지를 하천으로 되돌리는 방안 검토의 필요성
(후보지 : 서천 길산천, 청양 왕진포, 공주 제민천 등)

31

- 관련 역사자원의 활용 : 浦口文化라는 관점에서 출발
 - 옛 浦口 = 과거 하천변 정치경제적 거점
 - 경제력을 배경으로 역사적 사건의 마당
문화재의 주요 분포지
 - 옛 浦口 = 대부분 현재의 지역 중심지
(일제강점기 이후 육상 교통망 구축 : 지역 거점 중심으로 개설)
→ 百濟 王都 외에도 小都邑 再生을 위한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성
(후보지 : 장항읍, 강경읍, 부강 등)
- 활용 가능한 역사자원
 - 유교문화자원 : 樓亭 및 書院祠宇 (士林의 집회장소)
 - 국가의례 자원 : 공사당[웅진연소]와 용당진사[웅진명소] 등
 - 관방자원 : 장암진성(기벌포 전투와 진포대첩) 등
 - 以上 : 빼어난 조망을 갖추어 하천변 경관요소로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
 - 활터[射亭] : 전통문화[鄉射禮]를 활용한 체험장소로 활용 가능성
 - 문화 콘텐츠 활용 소재 발굴 : 중고제 판소리, 내포제 시조 등

32